

“무안군에 확실한 이익 안겨줘 군공항 받게 하겠다”

급물살 타는 광주 군공항 이전

광주·전남 숙원사업이었지만 수년째 짝 막혀 있던 광주군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안군이 군공항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정부주관으로 문제해결을 약속하고, 무안군이 우선처분 이익 취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호남의 마음을 듣는다’를 주제로 지역 현안을 들었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1부에서 진행된 ‘광주 군공항 및 호남권 발전 토론’였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산하에 광주군공항 해결을 위한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6자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했다.

십수년간 해법을 찾기 못하고 있던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에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지자체의 장인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적절히 타협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데도, 의견의 차이 또는 오해 때문에 나쁜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다”며 “허심탄화하게 한바탕 이야기해 보고, 최종 결론은 나지 않더라도 해결책의 단초를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광주 군공항이전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지역의 숙제인 광주군공항

이 대통령, 중재자로 나서 조율

무안군 우선처분 이익취득권 보장

직·간접 소음피해 객관적 조사 강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특별법을 제정해 기부대양여방식 해결법을 제시하고 광주시만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국가 주도로 광주공항(민간·군)을 이전에해 무안공항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 입장에 있어서 무안군민 수용성 높이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 강화를 건의했지만, 현실적인 방안이 만들어 지지 않아 무안 군민들 설득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국가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해서 올해 연말내에는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광주군공항 이전에 반대해 온 김 군수는 “신뢰할 수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8년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협약을 맺었지만, 일방적으로 광주시가 협약을 파기했던 적이 있어 광주시가 말하는 1조원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소음 피해 우려도 커 군민을 위해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의 입장을 들은 이 대통령은 “오늘 최종 결정을 내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중재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무안군의 불신을 해결하는 안으로 광주군공항 이전 이후 진행될 광주공항 부지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시 무안군을 참여시켜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갖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무안군에 불신을 씻기 위해 이 대통령은 군 관계



25일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광주공항에서 여객기들이 대기하고 있다. 광주공항은 민간항공기가 전투기 활주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민간공항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자와 광주시, 전남도 등에게 광주군공항 이전 이후 생기는 부지면적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확인하며 광주군공항 이전 후 광주시가 무안군에 지원하기로 한 1조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군공항 이전으로 무안은 피해를 입는 반면 전남은 대규모 국가시설을 유지하는 만큼 전남도 조금 책임져 달라”는 이 대통령의 요청에 김지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이전에 따른 실제 소음피해 여부도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가장 소음이 큰 전투기 이·착륙시 소음을 측정해 소음 피해 거리를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직·간접 피해범위를 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대통령, 지역민과 대화 나누며 텃밭 민심 챙겨

소통강화 배경…울산 데이터센터·해수부 부산 이전 이어 영·호남 통합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심장부’ 호남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을 미팅’ 행사를 열고 지역민 등 약 10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정기권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하며 이날 일정을 비우게 된 이 대통령이 그 시간을 호남 방문으로 채운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대선에서 80%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호남을 직접 방문,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텃밭 민심을 이루만지겠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최근 울산 데이터센터 출범식 참석 및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독려 지지 등으로 PK(부산·경남) 민심에 구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호남을 끌어안으며 영·호남 통합

메시지를 부각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이 대통령이 수시로 소통 강화를 주문해 온 것도 이날 행사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 현안을 직접 지역민의 입을 통해 듣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특히 광주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시작된 ‘빛의 혁명’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아니겠나”라며 “광주·호남에서 (시작된)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어떻게 실현될지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지역의 숙원인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엿볼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관한 의견도 듣고 싶다. 대한민국이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여러 문제가) 수도권에 미어터지면서 생기

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며 “균형발전을 통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상당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집에 따른 비효율 문제 때문에 집값이니 국제 경쟁에 심각한 문제가 오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똑같이가 아니라 지방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재난, 소비쿠폰 지원이나 지역화폐 지원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더 멀수록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번 에 시범적으로 실행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하는 등 대선 과정의 공약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력을 보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광주공항, 1949년 민간공항으로 개항

1964년 광산구로 이전 군공항과 통합

1949년에 민간공항으로 개항한 광주공항은 1964년 현재 광산구 신촌동으로 이전에해 군공항과 통합운영에 나섰다.

광주공항은 1995년 국제공항으로 승격했지만, 지난 2008년 국제선 기능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됐다.

광주공항은 서구와 광산구 개발에 따른 도시화로 주민들의 소음·재난권 침해 피해로 군공항 이전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전 요구가 지속됨에도 난항을 겪자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이전 논의 시작됐다.

기부 대 양여(광주시가 신공항 건설 후 국방부에 기부, 기존 부지 개발권 획득) 방식의 이전이 제안 된 것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무안지역 15.3㎢(463만 평) 부지에 군공항 시설을 옮겨 짓는 사

업으로 11.7㎢(353만 평) 규모로 군공항 시설을 먼저 짓고 종전 부지 소유권을 남겨받아 개발 이익으로 이전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2018년 광주·전남·무안이 공항 이전 협약을 체결했지만 공항이전이 군공항 이전까지 연계되면서 오히려 갈등은 커지게 됐다.

2023년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군공항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국가가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됐지만, 진전은 없었다.

무안군은 주민 수용성 부족, 소음·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이전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광주집중 공약에서 정부가 주도, 대통령 직접 조정, 충분한 보상 등 3대 원칙 해법을 제시해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다.

/정병호 기자 jusbh@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익제출 및 구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심우건설(이하 ‘당사’)은 2025년 6월 25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우미건설 주식회사’가 당사를 흡수합병하여 당사의 권리와무 일체를 승계하고 당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일부부터 1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상법 제 527조5 제1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그리고 당사의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각 주주 및 절권자는 이 공고제출일(일부부터 1월 이내에 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6일
주식회사 심우건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81, 1002-1호 (정자동)
대표이사 오종오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5년 6월 25일 임시주주총회의에서 자본금 800,000,000원중 금 400,000,000원을 감소하고 액면주식 1주의 금액 10,000원중 5,000원 주주에게 환급하여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5,000원으로 하는 방법에 의하여 감소할 것으로 결의하였으므로, 본 자본금의 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이나 구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본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제기 및 구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6일
현대미온 주식회사
전라남도 곡성군 결면 곡성로 2068
대표이사 서재홍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옥자(580805-2XXXXXX)
- 최후주조 : 광주 남구 백운로82번길 10, 101동 1006호(백운동, 대흥백운스카이1차)
- 피상속인 망 김옥자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5년3875호로 신청하여 2025년 6월 2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6월 26일
- 상속인 : 윤성준(801219-1XXXXXX)
광주 북구 설죽로 419, 104동 703호 (삼각동, 일곡엘리체프라인)
- 신고기간 : 2025. 6. 26. ~ 2025. 9. 5.
- 채권신고처 : 상속인 윤성준의 주소

분 실 공 고

- 임대계약서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506-3 수완 한국 아벨리움 104동 1304호
- 계약자 : 정 성 희
-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 2025년 6월 26일

73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지역내선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신 안 222-0171
	• 북광동 525-3761	• 오 치 266-7601	
	• 양 산 571-7658	• 우 산 433-1503	
	• 용 동 433-1503		
동 구	• 남 경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양 222-9054	
	• 중 정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북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동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경 376-6511	• 문 양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문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잔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